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발행인 : 서창옥/편집인 : 나은우/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전화 02)794-4146/전송 02)794-3146

www.kamje.or.kr



회원 현황 및 회원 가입 안내

우리 협의회의 단체회원은 2011년 5월 현재 197종 학술지(의학 학술지 160, 의과대학 학술지 11, 의학 외 분야 학술지 26)이며, 개인회원이 41명이다.

특별회원은 갑우문화사, 광문출판사, 메드랑(의학문화사), 서형디자인, 신원데이터넷, 아이비기획, 아카데미아, 엠투커뮤니티, 우리의학사, 진기획, 죄신의학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XMLink, InfoLumi, Google, NHN(주),

ML communications(중앙문화사), XMLARCHIVE 총 1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홈페이지(kamje.or.kr)의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하거나 사무국(전화: 794-4146, 팩스: 794-3146)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회장 인사



1996년 2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편협)가 발족한 후 15년이 지났습니다. 3년 임기의 회장단을 다섯 번 거쳐서 6대 회장단이 지난 4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의편협은 소박한 마음으로 출발하였으나 지난 15년간의 성과는 창립 회원들이 상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SCI 등재 학술지에 실리는 국내 의학자들의 논문이 막 증가하기 시작하던 때에 51개 학술지 편집인과 7명의 개인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 197개 학술지와 41명의 개인회원, 18개 특별회원이 참여하고 있고, KoreaMed, KoreaMed Synapse, KoMCI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협의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의편협 창립 종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224종의 의학학술지가 있었으나 Medline 학술지는 5종이었고 SCI에 등재된 국내의학학술지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의편협은 국내 의학 논문과 학술지의 질을 높이고자 창립 됐고 동시에 우수한 국내 논문을 국내·외로 널리 읽히게 하자는 목적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편협의 초창기 사업은 그 당시 의학 학술지 현황 조사, 학술지 평가, 논문작성과 심사에 관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내 학술지 초록 데이터베이스는 국제화를 염두에 두고 영문으로 구축하였고, 의편협 자체기술로 개발한 영문초록데이터베이스 KoreaMed (www.koreamed.org)를 2001년 9월에 개통하였습니다. 2011년 4월 말 현재 168종 학술지의 영문초록 173,205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준 이상의 학술지만 KoreaMed에 등

재하는 방침은 국내 학술지의 질을 향상하는 촉매제가 되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Naver와 Google를 통해 국내외 어디에서나 KoreaMed 수록 논문 초록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학술지가 KoreaMed에서 학술지 웹사이트로 Link-Out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국내 학술지 논문들이 국제적으로 읽히게 되었습니다. KoreaMed 방문자 수는 2006년 이전 연간 120,000명이던 것이 2008년에는 720,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국제화의 성과는 2008년에 11개의 학술지가, 2009년도에는 7개의 학술지가 SCI에 대거 등재되는 쾌거로 이어져 현재 24종의 의편협 회원 학술지가 SC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각 논문에 고유번호인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를 부여하는 CrossRef에 가입해서 의편협 학술지 논문들에 DOI를 부여하기 시작하였고 DOI linking platform으로 Pubmed Central과 같은 XML 시스템인 원문제공 데이터베이스 KoreaMed Synapse(www.synapse.koreamed.org)를 구축하였습니다. KoreaMed Synapse의 구축으로 국내 논문들이 참고문헌을 통하여 전 세계 학술지와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궁극적으로 회원 학술지의 인지도와 피인용 기회를 높이게 되었는데, KoreaMed Synapse를 방문하는 건수가 KoreaMed보다 높아져서 2010년도에 1,000,000건을 넘었을 정도입니다.

KoreaMed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으로 WHO의 서태평양 지역기구(WPRO)와 협력하여 서태평양지역 Index Medicus(WPRIM)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의편협이 주도하게 되었고 2008년 5월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 협의회(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 창립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관련자들이 의편협의 문헌정보처리 기술을 배웠습니다. 금년 8월에는 First APAME

Congress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인근 지역 국가에 대한 지식정보나눔은 의편협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며 이런 봉사활동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검색기능의 발달은 이중계재, 저자권 침해 등 출판윤리 문제를 수면으로 떠올렸습니다. 의편협에서는 출판윤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02년도부터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해왔으며 2006년도에는 의편협 내에 윤리위원회를 신설하여 2008년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고 국내 학술지의 이중계재율 조사, 《이중계재 사례집》 발간 등 출판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편협의 활동은 국내 다른 학술 분야 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KoreaMed, KoreaMed Synapse, KoMCI 등 데이터베이스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의학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편협이 오늘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의학회의 지원과 의편협의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의 창의적 열정과 헌신, 회원 학술지 편집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15년간의 성공에도 아직 일부 학술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의편협이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국내 모든 학회지의 논문들에 DOI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중계재, 표절, 저자권 침해 등 출판윤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저자와 편집인을 교육하는 데 더욱 힘을 쓸 것입니다. 물론 각 논문의 학문적 질을 높이는 것은 저자 개인들과 편집인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의 일원으로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편협도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모범이 되는 단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가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전 회원의 창의력과 열정을 모아 도전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 서창옥



학술지 편집(특히, 참고문헌 오류)에 관한 요청사항

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KoreaMed, KoreaMed Synapse 작업을 하던 중에 회원학술지의 참고문헌에 많은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래는 지난 5월 18일 우리 협회에서 회원학술지에 발송한 권고 공문 내용이다.

- 훌륭한 학술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학술지 편집위원장님들께 편집과 관련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의편협의 회원 학술지 중에서 일부 학술지의 참고문헌 표기에 오류가 많아 국내외 주요 색인기관과의 학술지 링크 작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참고문헌 오류 사항을 수정하고 정정하는 데 있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되어 정상적인 데이터 업로드 작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문헌이 부정확할 경우, 해당 학술지의 KoMCI 인용현황 파악 및 영향력지수 산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 이런 측면을 감안하시어 학술지 편집에 있어 참고문헌의 정확성에 더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 또한 XMLink로부터 참고문헌 오류 수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학술지 및 인용현황의 무결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수정 작업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oreaMed 등재를 위한 제27차 신규평가회 개최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학술지 중 아직 KoreaMed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를 대상으로 학술지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평가는 자체평가, 실물평가, 협의회 조사 항목으로 총 28개 문항으로 이루어지며, 평점 2.5 이상을 받은 학술지는 KoreaMed에 등재된다. 대상학회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편협 사무국(전화: 794-4146)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 평가 대상 학술지: 계명의대학술지, 고신대학교의과대학 학술지, 당뇨병, 대한골대사학회지, 대한구강악안면병리 학회지, 대한두경부종양학회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지, 대한음성언어의학회지, 동국의학, 보험의학회지, 임상약리학회지, 정신병리학, 정신신체의학, 조선대학교의 대논문집, 중앙의대지, 충북의대학술지, 한국정신치료학회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 환경독성보건학회지, Brain & NeuroRehabilitation, Toxicological Research, Journal of Women's Medicine, Korean Journal of Audiology,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Korean Journal of Stroke, Mycobiology 이상 26종.

- 일시: 2011년 6월 23일 (목) 오후 4시

- 장소: 서울의대 본관 2층 제1교수회의실



CrossCheck 설명회 개최 안내

우리 협의회는 2011년부터 논문표절 방지 프로그램인 CrossCheck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회원학술지를 대상으로 CrossCheck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은 일정을 마련하였다.

KoreaMed Synapse에 참여하고 있는 학술지 중에서

논문표절 방지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학술지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등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 학회당 2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2011년 6월 3일(금)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참석할 수 있다.

CrossCheck(표절방지 프로그램) 설명회

일 시: 2011년 6월 14일 (화) 오후 5시

장 소: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구,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사회: 최인홍(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17:00	회장 인사
17:05~17:35	CrossCheck란 무엇인가?
17:35~17:55	iThenticate Plagiarism Checker의 이용법
17:55~18:10	휴식
18:10~18:40	표절과 관련된 출판윤리 이슈
18:40~19:00	사례분석
19:00~19:30	종합토의 및 폐회

권오훈 (의편협 정보관리위원장)
윤선정 (XMLink 기획팀)

김수영 (의편협 출판윤리위원)
최인홍 (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CrossCheck 가입 희망 조사 실시

CrossCheck 설명회와 관련하여 본 협의회에서는 설명회 이전에 얼마나 많은 학회가 CrossCheck에 가입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원학술지에 참가희망 조사 설문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표절검사 프로그램인 CrossCheck에

관심이 있는 회원 학술지는 본 협의회에서 발송한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어 6월 7일까지 가입 의향서를 본 협의회 (kamje@kamje.or.kr)로 제출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



의편협 · XMLink MOU 체결



우리 협의회는 의학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 구축과 유통촉진을 위해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XMLink(주)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역할분담을 명문화하고 관계를 공고하고자 지난 3월 30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 각서에서 두 단체는 의편협 회원학술지의 학술정보 유통 및 기술 개발 그리고 국제화를 돋는 등 공익적인 가치에 최우선의 운영 목표를 두기로 합의했다.

(사진설명: 2011년 3월 30일, 임정기 의편협 전 회장과 이상은 XMLink 전 대표와의 협약서 교환)



서창옥 회장, 동아일보와 인터뷰

지난 4월 15일 서창옥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창립(1996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수준이 크게 향상된 양상을 소개하였다. 또한 국제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이학

술지의 편집 수준뿐 아니라 학술지 정보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기술과 논문의 인용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6기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임원 및 위원회 구성

제6기 의편협을 이끌어 갈 새 집행진(임기:2011.4.1 ~ 2014.3.31)이 구성되었다. 3월 30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에 서창옥 교수(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 부회장에 홍성태 교수(서울의대 기생충학)가 선출되었고 임원 및 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임원

직위	성명	소속
회장	서창옥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
부회장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감사	조수현	서울의대 예방의학
감사	오병훈	연세의대 정신과
기획평가 위원회	위원장	오세정
	간사	이령아
정보관리 위원회	위원장	권오훈
	간사	김상현
교육연수 위원회	위원장	최인홍
	간사	김정호
운영 위원회	위원장	나은우
	간사	박중원
출판윤리 위원회	위원장	함창곡
	간사	배종우
국제협력 위원회	위원장	서정욱
	간사	김혜원

기획평가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오세정	가톨릭의대 외과학
간사	이령아	이화의대 외과학
위원	김재원	서울의대 산부인과학
위원	양희진	서울의대 신경외과학
위원	김태일	서울대병원 치과
위원	김나영	서울의대 내과
위원	김찬윤	연세의대 안과
위원	채성원	고려의대 이비인후학
위원	조동숙	을지대 간호학
위원	유원준	서울의대 정형외과

정보관리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권오훈	한솔병원 내과
간사	김상현	서울의대 내과
위원	김태일	서울대치대 치주과
위원	이춘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위원	정소나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도서실
위원	정정임	가톨릭의대 영상의학
위원	홍순준	고려의대 내과학

의편협 초대 회장에는 박찬규 교수(연세의대 산부인과학), 제2대 회장은 함창곡 교수(한양의대 영상의학), 제3대 회장은 조승열 교수(성균관의대 기생충학), 제4대 회장은 박찬일 교수(연세의대 병리학), 제5대 회장은 임정기 교수(서울의대 영상의학)가 회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교육연수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최인홍	연세의대 미생물학
간사	김정호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
위원	이경수	성균관의대 영상의학
위원	이은소	아주의대
위원	이상암	울산의대
위원	김정목	한양의대

운영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나은우	아주의대 재활의학
간사	박중원	연세의대 내과
위원	홍정	아주의대 소아외과
위원	방문석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위원	김은경	연세의대 영상의학과
위원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위원	박인원	중앙의대 내과
위원	이종은	연세의대 해부학

출판윤리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함창곡	중앙대병원 건강증진센터
간사	배종우	경희의대 소아과학
위원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위원	박병주	서울의대 예방의학
위원	박영주	고려의대 간호학
위원	박찬일	연세의대 병리학
위원	서창옥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
위원	오병훈	연세의대 정신과학
위원	한동수	한양의대 내과학
위원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국제협력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서정욱	서울의대 병리학
간사	김혜원	관동의대 간호학과
위원	김성훈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위원	조구영	서울의대 내과학
위원	주대명	가톨릭의대 생화학